

매년 똑같은 ‘공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가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흐름 중 하나로,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 기업은 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해외국가 최저임금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최저임금이 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내 인력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고민과 외자유치를 위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선 안 된다는 고민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국가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국가도 있고, 중앙 정부 또는 각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도 있다.

1. 베트남

베트남은 통상 매년 1월 1일자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매년 11월경 다음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시행령 제정).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유지하다가 2022년 7월 1일 자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을 필두로 노·사·정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는 최저임금을 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 월 20~28만 동을 인상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특이하게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산식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는 경제 및 고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산정 공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매년 11월 21일까지 결정 및 공포돼야 하고,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 산정 공식

$$\text{최저임금}(t+1) = \text{최저임금}(t) + \text{최저임금조정액}(t+1)$$

최저임금조정액은 다음과 산식에 의하여 계산됨

$$\text{최저임금조정액}(t+1) = [\text{인플레이션} + (\text{경제성장률} \times a)] \times \text{최저임금}(t)$$

최저임금조정액 산식의 ‘(경제성장률×a)’에 포함된 변수 ‘a(특정 변수)’는 0.1 내지 0.3 사이에 있는 특정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이 a값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에는 ▲인력 고용률 ▲임금 평균값 또는 중간값 ▲고용조건과 관련된 기타 요소가 있다. 만약 최저임금조정액이 0이거나 또는 0보다 낮은 값인 경우,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현행 연도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38개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표 1]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 추이

(단위 : 만 동, 월급 기준)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2022. 6.	2022. 7.~2024. 6.	2024. 7.~ (국가임금위 결정)
1지역	310	350	375	398	418	442	468	496(+28)
2지역	275	310	332	353	371	392	416	441(+25)
3지역	240	270	290	309	325	343	364	386(+22)
4지역	215	240	258	276	292	307	325	345(+20)
평균인상률	14.2%	12.4%	7.3%	6.5%	5.3%	5.5%	6%	6%

3. 중국

2024년 4월 1일 기준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은 월급 1860~2690위안, 시간급 17.9~26.4위안이다. 월급은 상하이(2690위안), 시간급은 베이징(26.4위안)이 가장 높은 반면, 하이룽장성(1860위안)과 하이난(17.9위안)은 각각 월급과 시간급 최저임금이 가장 낮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라 중국에선 최저임금은 지역별 월급과 시간급으로 결정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 행정부처에서 동급 노동조합,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와 공동으로 방안을 제정한 후 중앙의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 보고한 뒤 확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임금 발표 시기와 임금수준이 다르다.

월급의 경우 해당 지역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 생활비, 도시주민 소비가격지수,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 실업률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시간급은 월급 최저임금을 기초로 회사가

부담하는 양로 및 의료보험료(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전일제 노동자의 근로 안정성, 노동조건 및 강도, 복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2~3년에 최소 1회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봉쇄기간에는 다수 지역에서 2년 이상 중단됐다가 2022년 이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표 2] 중국 상하이 기준 최저임금 인상 추이 (단위 : 위안)

시행 시기	월급		시간급	
	금액	인상율	금액	인상율
2015. 4. 1.	2020		18	
2016. 4. 1.	2190	8.42%	19	5.6%
2017. 4. 1.	2300	5.02%	20	5.3%
2018. 4. 1.	2420	5.22%	21	5.0%
2019. 4. 1.	2480	2.48%	22	4.8%
2021. 7. 1.	2590	4.44%	23	4.5%
2023. 7. 1.	2690	3.86%	24	4.3%



4.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현재 2024년 기준 월 204달러(USD)다. 2024년 기준 아시아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스리랑카가 56불로 가장 낮고, 라오스 77불, 미얀마 83불 순으로 이어진다. 캄보디아는 말레이시아(318불), 태국(241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캄보디아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은 아닌 셈이다.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각각 1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만약 협의가 어려우면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캄보디아 최저임금 제도에서 독특한 점은 총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에서 추가적인 인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정치적 및 정무적 방식이 결합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노법**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기사 도움〉

- 베트남 :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인도네시아 : 이대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캄보디아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국 : 구영미 엠케이차이나 상무

*이 기사는 노사발전재단과 공동 기획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추이

(단위 : 미국 달러, 월급 기준)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최저임금	140	153	170	182	190	192	194	200	204
인상률	—	9.3%	11.1%	7.1%	4.4%	1.1%	1.0%	3.1%	2.0%

[표 4] 국가별 최저임금 결정방식 비교

구분	최저임금 결정의 주체		비고
중앙/주 정부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 존재
별도 위원회	캄보디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에 총리가 추가적인 인상을 적용할 수 있음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건의에 기초해 결정	
제3의 기준	중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 행정부처에서 동급 노동조합,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와 공동으로 방안 제정 후 중앙의 인력 자원및사회보장부에 보고해 확정	